

## 醫斷의 翻譯에 대한 考察

김태영\* · 김석영 · 강구현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 A Study on translation of Idan

Tae-young Kim\* · Seok-young Kim · Gu-hyun Ka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 Shinwol-dong, Jechon, Korea

---

#### Abstract

**Objective** :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readers of Idan with translating in compliance with and restraining spoken language

**Method** : referred to Chinese ancient language grammar and Korean standard language grammar

**Results & Conclusions** :

1. spaced the original text by adequate syntax
2. corrected typo in typed text under the original text
3. translated in compliance with and restraining spoken language
4. footnoted in reference to fables and phrases

**Key Words** : Chinese ancient language, grammar, Korean standard language, fables and phrases, Idan, typo.

---

#### 序 論

醫斷은 吉益東洞의 의학이론을 문인 鶴元逸이 1747년에 편집한 책이다. 鶴元逸이 간행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기에 동문인 中西深齋가

수정, 보완하여 1754년에 간행했다. 吉益東洞의 의학이론이 사명, 사생, 원기 등 37장으로 나뉘어 요약되어 있다.

醫斷은 古方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입

---

\* 교신저자: 김태영,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Oriental Medicine Department of Semyung University, Semyung 65th St. Jechon, Chungbuk, Korea. +82)10-2406-7813, kty70120@hanmail.net

문서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醫斷에는 吉益東洞이 古方 및 後世方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 古方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대략 古方에 대한 개념과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醫斷의 번역은 신영섭 원장을 비롯한 원광대학교 복치 의학회에서 최초로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러나 吉益東洞 전집에 실려 있는 원문과 비교해 보면 방점표기, 띄워 쓰기가 다르고, 오탈자가 다수 있으며, 원문에 대한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등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醫斷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번역할 때 吉益東洞 전집에 실려 있는 원문을 바탕으로 편집 방면으로 방점표기, 띄워 쓰기를 한 후에 오탈자를 정확하게 수정하였다. 번역 방면으로는 생생한의원 광주점 이승인 원장의 의단 해석을 참고하여 정통 한문 문법에 맞는 않는 해석과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서당식 한문 번역투의 글, 구어체의 글 등을 지양하고 평소에 많이 쓰는 표준 한국어를 바탕으

로 번역본만 읽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수행하였다.

## 本 論

### 1. 원문 수정

#### 1) 방점표기 및 띄어쓰기 수정

수정한 부분이 매우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예로 들어 보면, 원문에서 司命편 “扁鵲之言曰. 疾在骨髓. 雖司命無奈之. 何是謂雖司命. 而不謂已爲司命也. 可以見已” 를 마침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절이 이어지는 부분은 콤마(,)로 문장이 문맥상 끝나는 부분은 마침표(.)로 처리하였으며 문맥상 부드러운 번역을 위해 띄어쓰기를 “扁鵲之言曰, 疾在骨髓, 雖司命無奈之何. 是謂雖司命, 而不謂已爲司命也, 可以見已.”와 같이 수정하였다.

#### 2) 誤字 校訂

기존에 원문에 오자가 많은데 吉益東洞 전집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수정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원 문	수 정	비 고
鍼(뜸소리 술)	鍼(도끼 월)	원문과 전혀 다른 글자라 수정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
阿(언덕 아)	何(어찌 하)	
祖(할아버지 조)	袒(소매걸을 단)	
茲(무성할 자)	茲(이것 자)	
親(친할 친)	視(보일 시)	
待待(기다릴 대)	特(특별할 특)	
茲(무성할 자)	俟(기다릴 사)	
能(능할 능)	不(아니 불)	
其(그 기)	起(일어날 기)	

원 문	수 정	비 고
逆(거스를 역)	亦(또 역)	
兼(갈대 겸)	兼(겸할 겸)	
瘡(병어리 음)	暗(어두울 암)	
暝(어두울 명)	暝(눈이 안 보일 명)	
汗(땀 한)	汁(즙 즈)	
得(물모양 득)	得(얻을 득)	서로 비슷해서 통용되기는 하나 동동전집 원문과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秒(분초 초)	稍稍(점점 초)	
各(각각 각)	各各(각각 각)	
匕(비수 비, 숟가락 비)	匙(숟가락 시)	
而(말이을 이)	耳(귀 이)	
已(이미 이)	己(몸 기)	己, 巳, 巳는 인쇄를 거듭하면 목판이 닳아 모두 己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문 해석시 문맥상 적절하게 번역해야 하며 동동전집에서도 서로 구분없이 사용했지만 원문과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畧(간략할 략)	畧(간략할 략)	畧과 畧은 같은 글자이지만 좀 더 많이 쓰고 통용되는 畧으로 수정하였다.

3) 빠진 부분 추가

현재 원문에는 原行子藏이 쓴 醫斷序(II)가 빠져 있다. 그래서 동동전집 원문을 보고 醫斷序(II)를 추가해 넣었다.

2. 翻譯

1) 脚註 첨가

중국의 고사 및 사서 인용구, 현대 일본어 및 일본 지명 등은 그 배경지식이 없으면 한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관련된 자료를 각주로 처리해 놓았다.

(1) 左袒

옷의 왼쪽 어깨를 벗는다는 뜻으로, 남에게 편들어 동의(同意)함을 이르는 말로, 史記

呂后本記에 황후 여태후(呂太后)는 고조가 죽자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다가 늙어 병이 위독하게 되었다. 여태후는 여록(呂祿, 趙王), 여산(呂產, 梁王)을 불러 “고조가 천하(天下)를 평정(平定)한 후 중신들에게 유씨가 아닌 자가 왕이 되면 이를 치라고 유언을 했다. 그런데 여씨로서 왕에 봉해진 자가 많으니 유씨 일족은 변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대들은 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고 궁중을 지켜 여씨 세력에 손상이 없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여태후가 죽자 그 위세에 놀려 있던 유씨 일족과 진평은 여씨 타도를 위한 계책을 논의하던 중 역기가 여록과 친한 것을 아고 그를 보내 여록을 달래게 했다. 무능(無能)한 여록은 북군의 군권을 태위인 주발에게 넘기고 말았다. 북군을 장악한 주발은 즉시 북군 군문으로 들어가 장병들에게 영을 내렸다. “여씨를 편드는 자는 오른쪽 어깨

를 벗고, 유씨를 편드는 자는 왼쪽 어깨를 벗어라(爲呂氏右袒 爲劉氏左袒)”이 말을 듣고 모든 병사들은 왼쪽 어깨를 벗고 유씨에게 충성 할 것을 맹세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2) 長門

명사로서 『지리·지학·지명』 옛 지명의 한 가지. 지금의 山口やまぐち현의 북서부 지방을 의미한다.

(3) 特操

とく-そう로서 일본어로 ‘변함없는 절개’를 의미한다.

(4) 瞿圃之射

공자가 확상의 채마밭에서 제자들과 활쏘기를 하고 있었는데, 관중들이 주위를 담장처럼 둘러싸고 이것을 구경하였다. 활을 잡은 자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패한 장군과 망해버린 나라의 왕,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남의 뒤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물러가시오.” 하니 반은 남고 반은 갔다. 다음으로 공망이 갑옷을 입고 이렇게 말했다. “다만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예를 좋아하는 사람과 세속의 흐름을 좇아가지 않고 수신할 사람만 남으시오.” 하니, 또 반은 가고 반은 남았다. 또 서점이 갑옷을 입고 말하기를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고, 예를 좋아하되, 변함이 없으며, 도를 칭하되, 어지럽지 않은 사람만 그 다음으로 남으시오.”하니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갔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5) 肯綮

핵심, 요체, 중요한 부분을 의미(肯 : 옳이여

길 肯 綮 : 힘줄엮힌곳 경)하는 말로 肯(궁)은 뼈에 붙은 살, 綮(경)은 힘줄과 살이 엮힌 부분을 뜻한다. 《장자(莊子)》 <양생주편(養生主篇)>에, 요리(料理)의 명인 포정(庖丁)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하여 소를 잡아 살을 도려낼 때, 그 기술은 궁경(肯綮)을 건드리지 않고 교묘히 도려냈다”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6) 備後

명사로서 옛 지명의 하나. 지금의 広島ひろしま현을 의미한다.

(7) 氷炭之間

얼음과 숯불사이로 서로 어긋나 화합할 수 없는 사이를 의미한다.

(8) 提唱

ていしょう로 제창, 어떤 의견 등을 주장함을 의미한다.

(9) 束脩

오징어, 쥐포 등의 말린 고기 묶음으로서 가벼운 예물을 의미하며 論語의 “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이란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10) 刀圭

옛날에 가루약을 뜨던 손가락을 말하여 비유적으로 의술을 의미한다.

(11) 堅白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공손용이 내어 건 일종(一種)의 궤변(詭辯)으로 이를테면, 단단하고 흰 돌은 눈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흰 것을 알 수 있으나 단단한지는 모르며,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단단한 것인 줄 알 수 있을 뿐 빛깔은 흰지 모르므로, 단단하고 흰 둘은 동일(同一)한 물건(物件)이 아니라고 설명(說明)하는 것이다. 뜻이 바뀌어 궤변(詭辯)을 의미한다.

#### (12) 子莫之中

맹자의 제자 子莫이 楊子와 墨子 철학의 중간을 택한 것을 이르는 말로 적절하게 중용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중간만을 취한 것을 맹자가 비난하였다. 孟子의 “子莫執中, 執中爲近之, 執中無權, 猶執一也.” 이란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 2) 精譯

기존의 醫斷 번역은 정확한 원문이 아닌 띄어쓰기 및 오자가 수정되지 않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번역을 했다손 치더라도 뜻이 통하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원문 text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한문 해석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번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번역하기 전에 동동전집의 원문을 기준으로 방점 및 띄어쓰기, 오자를 교정한 다음 번역을 진행하였다. 번역을 하면서 한문을 번역했다는 느낌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한글로 쓴 글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본래 한문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 원문이 잘못 입력된 것을 수정하여 번역한 경우

“識者左祖君也”를 “식자들은 祖君을 도울(左=佐로 해석) 것이다.”로밖에 번역할 수 없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吉益東洞 전집의 원문을 바탕으로 “識者左祖君也”으로 수정하여 “학식있는 자들은 동동선생에 동의하게 되었으니”라고 번역하였다.

(2) 원문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번역을 하는데 본래의 의미대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

“不可強爲之說”을 기존에는 “억지로 말지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爲’를 ‘만들다’, ‘짓다’로 번역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억지로라도 따를 만한 이론이 못된다.”라고 ‘爲’를 ‘行’의 의미로서 ‘실행하다’, ‘따르다’로 번역하였다.

또한 “後人增演其說, 以誇窮理”도 기존에는 “후세 사람들은 그 說에 부연하여 궁극적인 이치라고 큰소리치는데”라고 ‘增演’을 ‘부연하다’라고 번역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세 사람들은 그 이론을 확대해석하여 궁극적인 이치라고 떠벌리는데”라고 ‘增演’을 ‘확대해석하다’라고 번역하였다.

(3) 번역을 하지 않고 원문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鈍弱可狎之物”과 같은 경우 원래 기존에는 “무디고 약한 可狎之物”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원문을 적어 놓았던 것을 본 논문에서는 “무디고 약하여 쉽게 다룰 수 있는 약물”로 최대한 한글로 옮겨서 번역하였다.

(4) 올바로 번역하였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 쓴 경우

“且夫所欲補之者, 非藥乎.”는 기존에는 “또한 저들이 補하려고 하는 것이 약이 아니던가.”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럴 경우 ‘약을 補한다’는 뜻이 되므로 “또한 저들이 補하려고 쓰는 것이 약이 아니던가.”로 번역하였다.

‘曰’은 기존에는 ‘~에서 말하기를 ~라고 한다’라고 번역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는 ~라고 한다’고 번역하였다.

또한 한문식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여 ‘~하는 바’ ‘무릇’, ‘대저’ 같은 것으로 번역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한글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5) 일부러 번역하지 않고 한자를 그대로 써야 더 자연스러운 경우

心下痺硬, 厥病과 같은 古方醫學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은 일부러 풀어서 번역하려고 하면 그 용어 자체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놓치게 되며 자칫 번잡하게 되어 번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 結 論

醫斷의 기존 번역본은 그 대의를 개략적으

로 파악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해석이 때끄러지지 못하고, 또한 오자뿐만 아니라 오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 입문자들에게 약간의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 醫斷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대의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고 별첨 1에 기존의 醫斷 원문을, 별첨 2에 이번에 새롭게 수정한 원문 및 번역본을 첨부한다.

### 參考文獻

1. 東洞全集. 吉益東洞. 編著-오수삼 外. 서울. 교정의서국. 2006:441-458.
2. 藥徵. 吉益東洞. 譯-이정환 外. 서울. 청홍(지사사). 2006.
3. 漢韓大辭典. 윤차현 외. 서울. 민중서림편집국. 2005.
4. 네이버 漢字辭典, 일본어사전, 국어사전 등. <http://dic.naver.com/>
5. 생생한의원 광주점. 이승인 원장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arunhani?Redirect=Log&logNo=90032570873>

별첨 1. 醫斷 수정 및 신규 번역본